


# 회 의 록

<b>분류</b>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내부회의		
<b>일시</b>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14시	<b>장소</b>	영국 런던, 시타딘호텔 카페
<b>참석자 (4명)</b>	<b>서울비엔날레 (4명)</b>	배형민 감독,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0명)</b>	-	<b>연락처</b> -
<b>주요 안건</b>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내부회의		
<b>세부 내용</b>	<p><b>1. 2017 서울비엔날레 운영 관련</b></p> <p><b>A. 2017 예산 및 추가인력 업무분장 보고 및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P) 출판 예산 부족하다 생각함, 예산은 자세히 검토 후 의견 전하겠음</li> <li>- 알레한드로 감독과 주제전을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큐레이터 섭외 진행 예정</li> <li>- (AZP) 사무국내 홍보 담당 인력이 충원되었으니 전략을 세워 실행하길 바람</li> </ul> <p><b>B. 돈의문 박물관 마을 / DDP 공간사용 계획안 보고 및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P)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DDP 디자인전시관 외 전체 공간 사용안에 대하여, 이는 기획 및 운영적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함</li> <li>- (AZP) 장소 통제, 보안 문제 해결방안 논의: 돈의문박물관마을의 공사 fence를 남기는 방안 제안</li> </ul> <p><b>2. 2017 서울비엔날레 기획 관련</b></p> <p><b>A. 프로젝트 기획현황 보고 및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전” 초청도시 선정 및 전시방법 검토: (AZP) MIPIM(the world property market 참고바람 <a href="http://www.mipim.com/">http://www.mipim.com/</a>)</li> <li>- “도시 신진대사“ 비엔날레 레스토랑 기획안 및 돈의문 박물관 마을 사용안 검토</li> </ul>		
<b>후속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전략 수립</li> <li>○돈의문 박물관 마을 통제 및 보안 시스템 계획</li> <li>○서울비엔날레 입장료 유/무에 대한 계획</li> </ul>		
<b>기타</b>			

# 회 의 록

<b>분류</b>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회의		
<b>일시</b>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09시	<b>장소</b>	영국 런던, 런던경제대 회의실
<b>참석자 (5명)</b>	<b>서울비엔날레 (4명)</b>	배형민 감독,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1명)</b>	Ricky Burdett (런던경제대 도시부분 교수)	<b>연락처</b> (리키버데트) <a href="mailto:R.Burdett@lse.ac.uk">R.Burdett@lse.ac.uk</a>  (assist)Mariana Spratley <a href="mailto:M.Barreto-Spratley@lse.ac.uk">M.Barreto-Spratley@lse.ac.uk</a>  (LSE Cities, Managing Editor)Peter Griffiths <a href="mailto:p.griffiths@lse.ac.uk">p.griffiths@lse.ac.uk</a> Researcher Aron Bohmann <a href="mailto:a.bohmann@lse.ac.uk">a.bohmann@lse.ac.uk</a>
<b>주요 안건</b>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자문회의		
<b>세부 내용</b>	<p><b>1. 2017 서울비엔날레 전체 자문</b></p> <p><b>A. 주제전 관련</b></p> <p>① 주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minent Commons는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Imminent Commons가 무슨 뜻이며 어떤 전시를 하는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부가설명을 필요로 함. 부제가 필요한</li> <li>- 열가지 공유(10 Commons)를 참여 프로젝트가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열가지 공유를 각각 열가지 개별 섹션으로 전시할 것인가? 각 섹션 별 4~5개의 참여 프로젝트가 있을 예정인가? (알레한드로 감독, 예)</li> <li>- 열가지 공유가 상위관계 없이 동등한 범주라면, 이를 공간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다른 방식의 구분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 (예. 잘 편집된 잡지처럼 장(Chapter)/ 대주제/ 소주제)</li> <li>- 따라서 열가지 섹션보다는 네가지 섹션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함. 열가지는 너무 많고, 현재 주어진 열가지 공유요소가 일관되지 않음. “도시가 자원과 기술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는 매우 직관적이며 이해가 쉬움. 하지만 “양식 Commonality”이라는 단어는 부가설명이 필요한 단어임. 우선 제안서들을 모두 기다려 본 후, 기획을 시작하면 될 듯</li> </ul> <p>➔ 알레한드로 감독: 모든 홍보물과 발표 자료들이 이미 공개된 상태인데, 용어나 구성이 변경되어도 괜찮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주제와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며 충분히 변화 가능함</li> </ul> <p>② 참여 프로젝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가들이 너무 많음. 모두 잘 알려진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도시를 건축 스케일에만 바라보고 있음</li> <li>- 아프리카와 아시아 프로젝트/참가자가 충분히 있는가?</li> </ul> <p>※ 참고. LSE는 앞으로 향후 2년간 아프리카 도시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함. 에드거 피에터스(Edgar Pieterse)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대한 좋은 전시를 한 적이 있음. Africa Center for Cities, <a href="http://www.africancentreforcities.net/people/edgar-pieterse/">http://www.africancentreforcities.net/people/edgar-pieters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프로젝트 개수는 50개로 충분함. 수를 늘리기보다 기획에 힘써야 할 것.</li> </ul>		

## B. 도시전 관련

### ① 콘텐츠 관련

- 참여도시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서울비엔날레는 초청도시들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 도시들은 주로 홍보용 자료를 보낼 것이라 예상됨.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하며, 많은 학자들의 검토를 통해 그들이 보내온 정보가 맞는지 증명 필요
- 23개의 자매도시 리스트가 훌륭함. 그들에게 “공유도시”, “열가지 공유”라는 키워드를 주고 그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콘텐츠를 내놓는지만 나열해도 흥미로운 전시가 될 듯. 이들 도시가 자원과 기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라. 그리고서는 하나는 서울비엔날레의 시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도시들의 시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나타낼 수 있음.
- 서울비엔날레가 주제에 있어 각 도시의 해결방안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님. 그들을 이용하여 논의를 제기하면 됨. ※단, 현장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포괄적인 기획 방향이 있어야 함.

### ② 공간 사용 관련

-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피터 마리의 뉴 런던 아키텍처(이하, NLA. <http://www.newlondonarchitecture.org/>)를 방문할 것을 권함. 그리고 런던의 도시전 콘텐츠에 관해 이 기관과 논의하기를 추천함. NLA에 가면 커다란 런던 도시 모형과 함께 현재 런던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런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곳을 방문하면 된다. 나는 DDP를 NLA와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함.



참고 이미지, 이미지 출처: NLA 웹사이트 ©Paul Raftery

- 즉, 도시전을 이원화하는 방법, DDP 디자인전시장에는 서울 현장 프로젝트와 함께 현장 프로젝트의 이슈와 연관된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같이 전시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효과적일 듯함. 그리고 둘레길에는 일반적인 도시전을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해봄. 도시전반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이슈를 끌어내는 방법. 도시전이 현장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 그리고 이러한 기획이 도시전의 도시들을 선택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지나치게 홍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전시는 하지만 둘레길 위치하여 너무 커다란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는 방법)

## C. 서울랩 관련

- 서울비엔날레의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는 현장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시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전시할 필요가 있음.
- 생산도시에 관하여는 사스키아 사센이 여러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D. 운영 관련**

- 예산/후원: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 미술비엔날레 예산이 \$ 8~10M, 건축비엔날레 본전시(주제전) 예산이 \$ 3~5M . 리키 버렛은 \$ 1M 후원을 가져왔고, 베니스비엔날레의 장기후원사인 로렉스가 \$ 2M의 후원을 지원했음. 베니스비엔날레 역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됨. 그들 역시 초기에는 서울비엔날레와 유사한 이유로 사적인 후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해 지나며 그에 대한 규정이 유연해짐. 만일 이번 서울비엔날레도 후원을 받는데 여러 제약이 있다면, 현물 후원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 가전, 가구, 운영자금, 프로젝트 자금 등
- 비엔날레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가?
- 티켓과 전시장 보안, 팬스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전체 전시 배치 및 동선을 대중의 입장에서 기획할 것, 1일 자원, 1일 기술 등.

**2. Ricky Burdett(LSE Cities/Urban Age)의 참여 방안**

- Ⓐ 2016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보여주었던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새로이 서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https://urbanage.lsecities.net/events/conflicts-of-an-urban-age>)
  - 런던 경제대 Urban Age에는 총 15개 도시에 대한 연구가 있음. 아직 서울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서울이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면 포함시켜 준비 가능함
  - 둘레길에 전시
- Ⓑ 현장프로젝트의 이슈를 중심으로 Urban Age 연구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전시 콘텐츠 생성
  - 둘레길 전시

※ LSE Urban Age 연구 소개: 2016 에콰도르 키토 전시(별도 브로셔 참조)

- ① 도시 형태 Urban Form  
: 밀도, 도시 발전, 형태 / density, urban growth, morphology
- ② 교통 관련 Transport  
: 이동성, 교통수단, 정책, 도로운영권 / mobility, modes of transport, policy outcomes, who owns what roads
- ③ 거버넌스 관련 Governance  
: 인구 거버넌스, 거버넌스 구조, 결정권 / governing city populations, governing structures

- Ⓒ 현재 주제전 참여자인 필립 로드(Philipp Rode)와 협력하여, Urban Age의 연구가 필립 로드의 mobility 프로젝트의 배경자료로 사용하고, RCA 의 자동차 디자인과(Dale Harrow, Head, Vehicle Design)도 참여하여 하나의 프로젝트 패키지로서 참여
- ➔ Ⓐ~Ⓒ 만일 새로운 도시(서울을 포함하여)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면, 풀타임 연구비가 필요

**후속  
조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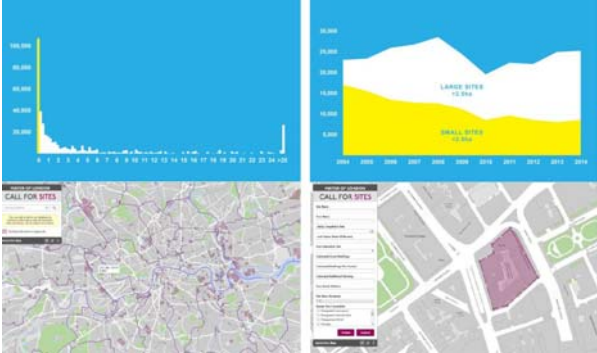

○리키 버렛/LSE Urban Age 참여방안 논의 필요

**기타**



○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김그린 선임에 문의

# 회 의 록

분류	도시전, 영국(런던시청)		
일시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12시	장소	영국 런던, 런던 시청
참석자 (5명)	서울비엔날레 (1명)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외부인사 (1명)	연락처	Finn Williams (런던시 North-West Area Regeneration Manager )  Finn.Williams@london.gov.uk
주요 안건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참여방안 논의		
세부 내용	<p><b>1.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참여방안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시 도시재생팀(Mayor of London, Regeneration Team)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소개</li> <li>○ 런던시 참여안 제시: <u>크라우드펀딩 플랫폼 “Call for Site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ll for site”웹 플랫폼을 통해 런던시 소유의 작은 규모의 유휴 공간들을 공개. 큰 유휴공간에 비해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유휴공간에 대한 계획안을 모집</li> <li>-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ll for Site” 정보 <a href="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london-plan/london-plan-full-review/call-sites-2016-shlaa">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london-plan/london-plan-full-review/call-sites-2016-shlaa</a></li> <li>· 공간열람 <a href="https://maps.london.gov.uk/CallForSites/">https://maps.london.gov.uk/CallForSites/</a></li> </ul> </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후속 조취	○런던시에 서울비엔날레 참여 초청문 전송(수신자: Finn Williams)		
기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김그린 선임에 문의</div> </div>		

# 회 의 록

<b>분류</b>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영국(영국문화원, RCA, CASS, V&A)				
<b>일시</b>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14시	<b>장소</b>	영국 런던, 영국문화원 회의실		
<b>참석자 (13명)</b>	<b>서울비엔날레 (4명)</b>	배형민 감독,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9명)</b>	<b>영국 문화원</b>	Alastair Donald (Program Manager, Architecture)	<b>연락처</b>  alastair.donald@britishcouncil.org	
			Beatrice Pembroke (Director, Creative Economy)		beatrice.pembroke@britishcouncil.org
			Gary Thomas (Programme Manager, Film)		gary.thomas@britishcouncil.org
			Joel Mills (Senior Program Manager, Music)		joel.mills@britishcouncil.org
	Debbie Leane (Program Manager, Fashion)		debbie.lean@britishcouncil.org		
<b>RCA 패션</b>	Zowie Broach (Head, Fashion Programmes, School of Material)	<b>연락처</b>  zowie.broach@rca.ac.uk			
	Susan Postlethwaite (Tutor, Fashion Programmes, School of Material)		susan.postlethwaite@rca.ac.uk		
	<b>CASS /LMU</b>	Sandra Denicke-Polcher, Deputy Head, Cass School of Art / Architecture & Desig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s.denicke@londonmet.ac.uk		
<b>Victoria &amp;Albe rt</b>	(스카이프를 통한 참석) Anais Aguerre (Head of International Initiatives)	a.aguerre@vam.ac.uk			
<b>주요 안건</b>	런던 내 기관들과 협업방안 논의 -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관련 -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관련				
<b>세부 내용</b>	<p><b>1. 2017 서울비엔날레 전체 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비엔날레의 차별성은 어디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astair) 얼마전 오슬로와 리스본 비엔날레에 다녀왔는데, 오슬로는 박사논문 전시와도 같은 비엔날레였고, 리스본은 전통적인 건축 비엔날레였음</li> </ul> </li> <li>○ 티켓 구매 유/무?</li> <li>○ 2017년 9월에 완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비엔날레 시작일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SS 대학, 국제스튜디오 참여 문의. 2017년 9월에 시작되는 국제스튜디오에 참여의사 밝힘</li> </ul> </li> </ul> <p><b>2.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관련</b></p> <p><b>A. 영국문화원</b></p> <p><b>① 영화영상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NIC Cultural Centres의 필름 페스티벌은 광범위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며, 어떠한 큐레이팅은 있지 않음. 또한 main stream 필름들 위주로 보여줌</li> </ul> <p><b>② SPEED 프로젝트 / Music City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담당 최석규 감독 기획안 관련 기획방향 및 운영관련 논의</li> </ul>				



- 영국문화원과 서울비엔날레 협업을 위하여 본 협업 프로젝트 담당 큐레이터가 필요함

③ 생산도시 관련

○기획안 관련

- 을지로 일대의 아티스트 스페이스들이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응책/계획안이 있는 것인가
- Fast fashion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문제가 많음(재활용 등). Fast Fashion의 파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패션 관련 폐기물 역시 가나로 보내짐
- 모든 제조업자와 생산 네트워크를 맵핑한 지도가 있는가?

○협업 관련

- 기본 기획 프레임이 세워지면, 영국 측 agent 들이 참여
-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현재 도심제조업 생태계의 생존계획이 필요함. 만일 서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프레임이 세워지면,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생각함
- 추천인사: 가브리엘라 고메즈몽 Gabriella Gomez-Mont(멕시코시티 시장 직속 혁신자문기관 ‘Lab for the City’대표, 서울시 주최 2016 미래혁신포럼에도 참여하였음) <http://labcd.mx/labforthecity/>

B. Victoria & Albert 협력안 제안

- 2017년도 한영 문화의 해, V&A 박물관 한국 전시관의 기념년도이기에 서울비엔날레와 협업 희망

Ⓐ 이탈리아 패션에 대한 전시 (희망장소: DDP)

- “infinite“라는 에이전시를 통해 DDP 전시팀에 제안한 바 있음
- 내용: 밀라노라는 도시가 패션산업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 도시 관련 학술행사 시리즈 개최

- (PAI 제안) 2017 서울비엔날레 출판물의 홍보행사로써 진행하면 어떠할지?

➔ 알라스터 도날드와 개별면담:

오늘 회의에서 보았듯, 현재 영국문화원 및 런던 내 여러 문화기관에서 여러 부서들이 서울비엔날레와 협업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것이 이 기관들 모두 아이디어는 있으나 예산이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을 세울 때, 이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후속  
조취


- 영상영화 프로그램 : BC 쪽 연결고리 → Gary Thomas (Programme Manager, Film)
- 최석규 감독과 SPEED + 생산도시 관련 회의 추진, 협력방안 구체화
- Victoria & Albert, Anais Aguerra과 함께 출판 홍보행사 관련 추진 → V&A에 출판물에 대한 소개서 및 출판 홍보행사 제안서 전송

기타




- 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김그린 선임에 문의

# 회 의 록


<b>분류</b>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영국(한국문화원)		
<b>일시</b>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08시	<b>장소</b>	영국 런던, 시타딘호텔 카페
<b>참석자 (4명)</b>	<b>서울비엔날레 (3명)</b>	배형민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1명)</b>	용호성 (주영 한국문화원(KCCUK) 원장)	<b>연락처</b> (assist)문지윤 큐레이터 jy.moon@kccuk.org.uk (assist)이현지 hyungi.lee@kccuk.org.uk
<b>주요 안건</b>	2017 한영 문화교류의 해 관련 협업방안 논의		
<b>세부 내용</b>	<p><b>1. 협업 방안</b></p> <p>A. Totally Thames (템즈강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9월 템즈 강에서 ‘강’을 주제로 하여 개최하는 런던시 주최 행사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음. 2016년에는 주영 한국문화원도 함께 행사를 진행했으며, 테이트모던 앞 강 위에 강익중 작가의 작업을 설치하였음.</li> <li>- 내년도 9월, 토탈리 템즈 행사와 함께 KCCUK 전시장에서도 연계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서울비엔날레와 협력전시를 하면 어떨지. 토탈리 템즈는 런던의 대표적인 행사이기에 홍보 면에서 매우 좋음. 올해 KCCUK 측 참여작가는 11월 말에 결정됨. (참고: <a href="http://totallythames.org/">http://totallythames.org/</a>)</li> </ul> <p>B. Dual 전시 → 서울비엔날레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CUK의 전시장과 서울의 전시장에서 (1)동일한 주제의 다른 전시(“생산도시 런던”/“생산도시 서울”) 혹은 (2)동일한 주제의 같은 전시(“생산도시”)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지. 런던 현지에 담당 큐레이터를 선임, 담당 큐레이터가 런던 내 여러 기관들과 콘텐츠 조율하여 런던 전시를 기획.</li> </ul> <p>C. 4~5월 서울비엔날레 홍보 행사 @ KCCU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월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서울비엔날레 워크숍처럼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행사를 KCCUK에서 열면 어떨지.</li> </ul> <p><b>2. 고려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10월 초, KCCUK는 &lt;올해의 작가전&gt;을 개최함, 하여 10월에는 전시장 사용이 불가함</li> <li>○KCCUK의 문지윤 큐레이터는 직접참여 불가 : KCCUK에서는 세 타입의 큐레이터 소개 가능함(프리랜서 영국인, 한국계 큐레이터, 런던 내 기관 소속 한인 큐레이터)</li> <li>○KCCUK는 올해 11월 말 전에 모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무리 지음</li> <li>○KCCUK 기존 전시장을 전시하기에 적합하도록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임(조명 변경, 전시 공간 확장)</li> </ul>		
<b>후속 조치</b>	○11월 3주 전, 서울비엔날레+최석규가 KCCUK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전달		
<b>기타</b>	 <p>○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 김그린 선임에 문의</p>		



# 회 의 록

<b>분류</b>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영국(RCA)		
<b>일시</b>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09시	<b>장소</b>	영국 런던, 쇼디치
<b>참석자 (5명)</b>	<b>서울비엔날레 (3명)</b>	배형민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2명)</b>	Zowie Broach (Head, Fashion Programmes, School of Material) Susan Postlethwaite (Tutor, Fashion Programmes, School of Material)	<b>연락처</b>  zowie.broach@rca.ac.uk  susan.postlethwaite@rca.ac.uk
<b>주요 안건</b>	런던 패션제조업 현황에 대한 설명 RCA 참여방안 타진		
<b>세부 내용</b>	<p><b>1. 2017 서울비엔날레 “생산도시” 관련</b></p> <p><b>A. “생산도시” 기획안 관련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로, 동대문 등 서울 도심 내 제조업이 굉장히 흥미로움. 현재, 런던 패션학교의 많은 한국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동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li> <li>- 런던은 과거(과거, 폴란드 이민자들과 공장들)와 달리 디자인과 생산이 분리되어 있음. 디자인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렸다 할 수 있음.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생산 역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li> </ul> <p><b>B. RCA 참여방안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PAI) 글로벌-로컬 시스템의 사용자로서 서울과 런던의 신진 디자이너를 초대코자 함</li> <li>o Susan Postlethwaite: 마이크로 매뉴팩처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새로운 생산 방법, 기계 등 런던 도심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함 (의류 산업 관련, 스페인 북부, 중국 쪽을 리서치 추천)</li> <li>o Zowie Broach: 런던(특히, 이스트 런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류제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추후 서울비엔날레 워크숍에 참여할 패션디자이너(학생) 소개하기로 함</li> </ul>		
<b>후속 조치</b>	o 생산도시 기획안 수립 뒤, 구체적 참여방안을 RCA에 제시		
<b>기타</b>			

# 회의록


<b>분류</b>	도시전, 영국(퍼블리카)			
<b>일시</b>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14시 30분	<b>장소</b>	영국 런던, 퍼블리카 사무실	
<b>참석자 (7명)</b>	<b>서울비엔날레 (3명)</b>	배형민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4명)</b>	<b>연락처</b>	Lucy Musgrav (Founding Director)	lucy@publica.co.uk
			Robert Mull (Director of Innovation)	robert@publica.co.uk
			신혜원 (Project Director)	hae-won@publica.co.uk
Kat Hayes (Communication Coordinator)	kat@publica.co.uk			
<b>주요 안건</b>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참여방안 논의			
<b>세부 내용</b>	<p>1.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블리카 제안서 : “Urban Commons : London_Seo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센트럴 런던) vs. 서울(을지로) 비교전시 제안</li> <li>- 제안서 별도파일</li> </ul> </li> </ul> <p>2.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블리카 과거 프로젝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ve industry 관련 프로젝트(현재 진행 중) : 브로드캐스팅의 개념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li> <li>- White chapel commission project, 서아프리카 패브릭에 관한 맵핑: 서아프리카 패브릭, 맨체스터의 생산공장, 중국회사</li> </ul> </li> </ul>			
<b>후속 조치</b>	<p>Publica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비엔날레의 퍼블리카에 대한 expectation이 무엇인가?</li> <li>○ 프로젝트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전시 스케일은 어떻게 가능해야 하는가?</li> <li>○ 런던 내 협력/참여 기관 간의 협업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li> <li>○ 최소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li> <li>○ 퍼블리카 팀 멤버가 서울 사이트(을지로)를 방문할 예산이 제공되는가?</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 김그린 선임에 문의</li> <li>○ Publica 제안서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 김그린 선임에 문의</li> </ul>		

# 회의록

<b>분류</b>	도시전, 로마(로마시)		
<b>일시</b>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13시	<b>장소</b>	이탈리아 로마, MAXXI 미술관 카페테리아
<b>참석자 (5명)</b>	<b>서울비엔날레 (3명)</b>	배형민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2명)</b>	Luca Montuori (Chief Secretary, Department of Cultural Growth) Pippo Ciorra (MAXXI, 건축부분 선임큐레이터)	<b>연락처</b>  luca.montuori@comune.roma.it  pippo.ciorra@fondazionemaxxi.it
<b>주요 안건</b>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참여방안 논의		
<b>세부 내용</b>	<p>1.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관련</p> <p>A. Luca Montuori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uca Montuori는 이탈리아 로마 트레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얼마 전 새로 부임한 로마 시장의 문화부 비서실장으로 선임되어 로마의 도시-문화 부분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음</li> </ul> <p>B. 로마시 현안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는 저밀도 도시 중 하나임. 도시의 빈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그 해결 방안으로 현재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도시 곳곳에 분산시키고 그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와 이들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li> <li>- 로마에도 영화 및 텍스타일 등 소규모 제조업에 관한 이슈가 있음</li> </ul> <p>(참고: 로마시 영화산업 관련 <a href="http://www.romecityoffilm.com/">http://www.romecityoffilm.com/</a> <a href="http://italiancinemaaudiences.org/prsp-exhibit/cinemas-in-rome/">http://italiancinemaaudiences.org/prsp-exhibit/cinemas-in-rome/</a>)</p>		
	<div data-bbox="290 1377 1203 2007" data-label="Figure"> </div> <p>- 문화유산지구인 도시 중심부와 그 주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고민 중임</p>		

<p><b>후속 조취</b></p>	<p>○로마시에 서울비엔날레 참여 초청문 전송(수신자. Luca Montuo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안 (무엇을 원하는지)</li> <li>· 전체 추진일정 계획안</li> <li>· 프로젝트 예산</li> </ul> </li> </ul>
<p><b>기타</b></p>	<div data-bbox="252 383 911 721" data-label="Image"> </div> <p>○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 김그린 선임에 문의</p>

# 회 의 록

<b>분류</b>	도시전, 암스테르담(암스테르담시)		
<b>일시</b>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2시	<b>장소</b>	암스테르담 시청 카페
<b>참석자 (7명)</b>	<b>서울비엔날레 (3명)</b>	배형민 감독, 김그린 주임 도시전 큐레이터 최혜정 교수	
	<b>외부인사 (3명)</b>	<b>연락처</b>	Sabine Gimbrère (Head, International Office) sabine.gimbrere@amsterdam.nl
		Eric van der Kooij (Head, Metropolitan Team) e.van.der.kooij@amsterdam.nl	
		Weng Shen Cheung (Senior Manager, China & Korea, Amsterdam Inbusiness) w.cheung@amsterdam.nl	
<b>주요 안건</b>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참여방안 논의		
<b>세부 내용</b>	<p><b>1. 2017 서울비엔날레 “도시전” 관련</b></p> <p><b>A. 암스테르담 시 현안 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건축 자문단 시스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Advisors : Landscape, Urban Planning, Architecture, Infrastructure 부분. 4년임기</li> <li>- Beauty Commission : 개발자 제안서 리뷰, 현재는 건축과 고건축 관련한 업무, 3년임기.</li> <li>- 내년도부터 자문단 시스템에 개편이 있을 예정. 공공장소에 대한 부분도 강화 예정임</li> </ul> </li> <li>○암스테르담 시의 경우 서울비엔날레 주제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도시이므로, 다른 도시들에 제안서를 받아 어떠한 항목이 부족한지 파악한 후, 암스테르담 시에 역으로 참여안을 제안하기를 이야기 함</li> </ul> <p><b>B. 과거 암스테르담 시정 홍보전시 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ree State Amsterdam” : 로테르담 비엔날레 등에서 암스테르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인터랙티브 모형을 통해 전시함</li> </ul>		
<b>후속 조취</b>	○암스테르담시에 서울비엔날레 참여 초청문 전송		
<b>기타</b>	 <p>○회의 녹음파일 : 서울비엔날레 웹하드 / 김그린 선임에 문의</p>		